

## 보도자료

2013. 10. 15.(화)



##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사무국

문의처

특허법원 판사 염호준 (042-480-1422)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동철 (02-530-1110)  
홈페이지: [www.ipjc2013.org](http://www.ipjc2013.org)

#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개최

2013. 10. 20. - 22. / 서울 삼성동 코엑스

■ 대한민국 사법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및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학계, 실무계에서는 2013. 10. 20. - 22.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함

■ 이번 컨퍼런스는,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특허 모의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와 한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 세미나 등으로 구성됨

■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결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특허 관련 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특히 대한민국의 특허제도, 특허소송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11. 10., 중국 최고인민법원 IP division은 2012. 5. 각 미-일, 미-중 지재 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음. 아시아에서 3번째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무역위원회(ITC) 수석판사 등 고위 법관과 특허청장 등도 참가할 예정임

## 1. 컨퍼런스 개요

- 1) 행사명 :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2013 Korea-US IP Judicial Conference)
- 2) 기 간 : 2013. 10. 20. (일) ~ 2013. 10. 22. (화)
- 3) 장 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 4) 참석자 : 약 750명 (국내 650명, 해외 100명)
- 5) 주 최 :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변호사회 (FCBA; 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
- 6) 주 관 :  
대한민국 특허법원, 특허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 7) 추진위원회 참여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대한민국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 법학전문대학원 등 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계한인변호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 실무계
- 8) 본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최대 12.5시간), 특허청 심사관과 심판관의 상시학습시간(최대 14시간)으로 인정됨
- 9) 홈페이지: [www.ipjc2013.org](http://www.ipjc2013.org)
- 10) 취재실 및 기자회견장 제공 : 본 행사의 취재진을 위하여 취재실 및 기자회견장을 제공할 예정임(2층 컨퍼런스룸 202호)

## 2. 컨퍼런스 개최 배경, 의의

- ☐ 오늘날 국내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해외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려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경쟁업체들과의 특허소송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 최근의 특허소송은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결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 이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사법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및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학계, 실무계에서는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 이번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에는,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

로 참여하는 모의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주제에 관한 분과 세미나 등이 포함되어 있음(상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ipjc2013.org](http://www.ipjc2013.org)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됨)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제 및 소송 실무상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데,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필수적 전제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은 매우 유용할 것임. 또한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은 정보 기술(IT),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분야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함.

□ 현재 대한민국 사법 제도,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 정보화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기업환경보고서 중 세계 사법제도 평가 순위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2007년 17위, 2009년 8위, 2011년 2위로 평가되었음], 본 행사와 같은 국제 사법 회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법관,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특허 제도와 특허 소송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사법 한류', '사법 허브(hub)' 전략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3. 예상 참가자

□ 예상참가자 : 약 750명

○ 미국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4명,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 2명, 특허청장 직무대행, 변호사 등 100여 명

○ 한국 : 법관, 변호사, 변리사, 교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학생 등 650여 명

○ 기타 국가 : 베트남 법관 20명 등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영국 등 외국에서도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임.

□ 등록 현황(2014. 10. 14. 현재) 706명

No.	국가명	등록자(명)
1	Australia	1
2	Brazil	1
3	China	1
4	Japan	3
5	Republic of Korea	564
6	United Kingdom	1
7	United States of America	115
8	Vietnam	20
총계		706

#### 4. 상세 프로그램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전체 세션 (10. 21. 10:10~12: 10)	<p><b>양국 법관 간담회</b></p> <p>·공동사회자: [한국] 박성수(변호사, 김앤장) [미국] Joo Mee Kim(변호사, Rothwell, Figg, Ernst &amp; Manbeck)</p> <p>·참가자</p> <p>-한국: 최성준(춘천지법원장), 이기택, 권택수(이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배광국(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서울고법 고법판사)</p> <p>-미국: Randall R. RADER(CAFC 법원장), Sharon PROST, Kathleen M. O'Malley, Jimmie V. REYNA(이상 CAFC 판사), S. James Otero(중앙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Charles E. BULLOCK(ITC 수석판사), Theodore R. ESSEX(ITC 판사)</p> <p>·진행방식</p> <p>양국의 사회자가 다른 국가 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함 / 청중으로부터의 질문도 받을 예정</p>	
분과 1, 2 (10. 21. 13:20~14: 40)	<p><b>사실관계의 조사와 심리</b></p> <p>·사회자: 유영일(변호사, 율촌)</p> <p>·발표자: [한국] 박환성(변호사, 광장) [미국] Nicholas Groombridge(Partner,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p> <p>·패널: [한국] 배준현(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유석(변호사, 딜로이트), 조용식(변호사, 다래) [미국] Kathleen M. O'Malley(CAFC 판사), Edward Reines(Partner, Weil, Gotshal &amp; Manges LLP), Michael Dzwonczyk(Partner, Sughrue Mion, PLLC), Michael McKeon(Partner, Fish &amp; Richardson)</p>	<p><b>제품 형태 보호방법의 차이</b></p> <p>-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p> <p>·사회자: 김태만(특허심판원 심판장)</p> <p>·발표자: [한국] 김관식(한남대 교수) [미국] Michael Remington(Partner, Drink Biddle and Reath)</p> <p>·패널: [한국] 윤태식(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명규(변호사, 태평양), 홍동오(변호사, 화우) [미국] Jimmie V. REYNA(CAFC 판사), David Ball(special Counsel,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Howard Miller(Partner, Girarde Keese)</p>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분과 3, 4 (10. 21. 15:00~16: 20)	<p><b>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b></p> <p>·사회자: 조영선(고려대 교수)</p> <p>·발표자: [한국] 박정희(변호사, 태평양)</p> <p>[미국] Patrick Coyne(Partner,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and Dunner)</p> <p>·패널: [한국] 이숙연(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철환(변호사, 율촌), 황성돈(변호사, 세종) [미국] S. James Otero(중앙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T. Andrew Culbert(Associate general counsel, Law &amp; Corporate Affairs, Microsoft Corporation), Claudia Frost(Partner, DLA Piper), Tina Chappell(Dire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tel Coporation)</p>	<p><b>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b></p> <p>·사회자: Robert Stoll(Partner, Drink Biddle &amp; Reath)</p> <p>·발표자: [한국] 제대식(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p> <p>[미국] Edgar Haug(Partner, Frommer Lawrence, and Haug)</p> <p>·패널: [한국] 김우진(특허법원 부장판사), 박준석(서울대 교수), 이원상(변리사, 제일특허) [미국] Sharon PROST(CAFC 판사), David Killough(senior attorney, Microsoft Corporation), Marty Zoltick(member, Rothwell, Figg, Ernst, &amp; Manbeck P.C.), Charles Suh(Partner, Finnegna, Hendersom, Farabow, Garrett &amp; Dunner)</p>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분과 5, 6 (10. 21. 16:40~18: 00)	<p><b>특허와 공정거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의 남용, 표준특허</li> </ul> <p>·사회자: Howard Miller(Partner, Girardi keese)</p> <p>·발표자:</p> <p>[한국] 최승재(변호사, 김앤장)</p> <p>[미국] Patrick Keane(Partner,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p> <p>·패널:</p> <p>[한국] 설민수(수원지법 부장판사), 노상섭(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박재건(변호사, 쉼컴)</p> <p>[미국] Theodore R. ESSEX(ITC 판사), Bernard Knight (formerly, general counsel,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Partner, McDermott, Will &amp; Lardner), Kevin Littman(Partner, Foley &amp; Lardner)</p>	<p><b>특허-허가 연계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지불 합의, 특허소송과 허가절차의 관계 포함</li> </ul> <p>·사회자: James Calkins(Associate Vice President and Global Head of Patent Operations, Sanofi)</p> <p>·발표자:</p> <p>[한국] 심미성(변리사, 김앤장)</p> <p>[미국] Meredith Addy(Partner, Steptoe and Johnson)</p> <p>·패널:</p> <p>[한국] 한동수(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춘원(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 김윤희(변호사, 세종)</p> <p>[미국] Randall R. RADER(CAFC 법원장), Robert Stoll(Partner, Drinker, Biddle and Reath), Philip Hirschhorn(Shareholder,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 Jennifer Swan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amp; Dunner)</p>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분과 7, 8 (10. 22. 09:00~10: 00)	<b>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관리</b> ·사회자: Edgar Haug(Partner, Frommer, Lawrence & Haug) ·발표자: [한국] 김유리(변리사, 삼성전자) [미국] Professor Dr. Heinz Goddar(Partner, Boehmert & Boehmert) ·패널: [한국] 박정훈(특허법원 판사), 최준우(법무팀장/변호사, 현대모비스), 김장각(변호사, 광장) [미국] Charles E. BULLOCK(ITC 수석판사), Karl Renner(Principal, Fish & Richardsom PC), John Scott(Vice president and Legal counsel, Qualcomm Incorporated)	<b>화학/제약발명의 특허성</b> - 결정형 발명, 이성질체 발명, 선택발명 등 ·사회자: 신윤숙(변리사, 리인터내셔널) ·발표자: [한국] 박금낭(변호사, 광장) [미국] Nicholas Cannella(Partner,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패널: [한국] 유영선(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영(특허청 국제특허심사팀장), 윤경애(변리사, 율촌) [미국] Theodore R. ESSEX(ITC 판사), Kristel Schorr(Partner, Foley & Lardner), Sandra Kuzmich(Partner, Frommer, Lawrence, and Haug), Robert DeBerardine(Vice President, Head of Global Patent Department, Sanofi)
전체 세션 (10. 22. 10:20~11: 20)	<b>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b> · 주제: 지식재산시스템의 발전, 양국의 최근 실무변화와 경험 · 공동사회자: 미정 · 참가자: [한국] 김영민 특허청장 [미국] Teresa Stanek Rea (Acting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Acting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전체 세션 (10. 22. 11:40~12: 40)	<p><b>패널 토론회</b></p> <p>·주제: 미국 관세법 337조에 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실무</p> <p>·공동사회자: [한국] 장덕순(변호사, 김앤장) [미국] Jamie Beaber(Partner, Steptoe and Johnson)</p> <p>·발표자: Michael Sandonato(Special Counsel,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Sturgis Sobin(Partner, Covington &amp; Burling LLP)</p> <p>·패널</p> <p>-한국: 이운호(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주섭(LG전자 상무), 민경현(SK 하이닉스 상무/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p> <p>-미국: Randall R. RADER(CAFC 법원장), Charles BULLOCK (ITC 수석판사), Theodore R. ESSEX (ITC 판사), Mark Fowler(Partner, DLA Piper)</p> <p>·진행방식: 패널 토론 / 청중으로부터의 질문도 받을 예정</p>	
전체세션 (10. 22. 13:50 ~ 15:00)	<p><b>한국측 모의재판</b></p> <p>- 주제(미국 모의재판과 동일) : 가상 청구항에 기초한 사안에서 청구항 해석, 특허 무효(신규성, 진보성),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 2가지 선정</p> <p>- 사회자: [한국] 김기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p> <p>- 한국측 모의재판 참가자</p> <p>- 재판부: 권택수(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강경태(서울고법 고법판사)</p> <p>- 소송대리인: 원유석(김앤장), 최정열(울촌)(이상 원고측) / 이후동(태평양), 김운호(광장)(이상 피고측)</p>	
전체세션 (10. 22. 15:00 ~ 16:10)	<p><b>미국측 모의재판</b></p> <p>- 사회자 [미국] Alice Ahn(Associate, Covington &amp; Burling LLP)</p> <p>- 재판부: Randall R. RADER(CAFC 법원장), Kathleen M. O'Malley(CAFC 판사), Sharon PROST(CAFC 판사)</p> <p>- 소송대리인: (원고측 2명 / 피고측 2명)</p> <p>John M. Whealan(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Board Associate Dean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Steven Lieberman(Partner, Rothwell, Figg, Ernst, Manbeck P.C.), Richard Rainey(Executive Counsel, IP Litigation at GE), Esther Lim(Partner,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amp; Dunner)</p>	

세션 종류	주제 A	주제 B
전체세션 (10. 22. 16:30 ~ 17:30)	<b>판결 선고와 토론</b> 양국 재판부가 동시에 입장하여 차례로 선고	

## [참고]

◎ 특허괴물로부터 미국법원에 소송당한 기업 순위 (2007년 ~ 2012년 6월)

1위 애플(152건) / 2위 휴렛팩커드(146건) / 3위 삼성전자(127건) / 10위 엘지(98건)

◎ 특허괴물 한국기업 대상 소송 추이

2005년 13건 ⇨ 2007년 46건 ⇨ 2009년 54건 ⇨ 2011년 94건

◎ 한국기업 국제특허 소송 현황

2009년 154건 ⇨ 2011년 280건 ⇨ 2013년(6월까지) 210건

◎ 미국에서 한국기업 특허분쟁 사례

- 램버스 vs. 에스케이 하이닉스(삼성전자) ⇨ CAFC 사례
- 애플 vs. 삼성전자 ⇨ ITC 사례

## [FAQ]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는 어떠한 컨퍼런스인가요.

A.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제 및 소송실무상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사법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및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학계, 실무계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오늘날 우리 국내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해외에서 그 시장점유율을 늘려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경쟁업체들과의 특허소송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특허소송은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결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사법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및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학계, 실무계를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제 및 소송실무상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국의 법관, 변호사, 변리사, 학자 등 전문가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에는 누가 참가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등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계한인변호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 실무계에서 약 500명 이상,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 로펌 및 다국적 기업 등에서 약 1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이번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에는,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주제에 관한 분과 세미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의재판은 한미 최초로 재직 법관들이 직접 주재함으로써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ipjc2013.org](http://www.ipjc2013.org))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모의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은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제 및 소송실무

상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데,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필수적 전제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은 정보 기술(IT),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분야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 제도,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 정보화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기업환경보고서 중 세계 사법제도 평가 순위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2007년 17위, 2009년 8위, 2011년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행사와 같은 국제 사법 회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법관,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특허 제도와 특허 소송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사법 한류’, ‘사법 허브(hub)’ 전략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013 한미 지재산소송 컨퍼런스’ 참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별로 참가하려면 컨퍼런스 홈페이지 <http://www.ipjc2013.org> 를 통하여 참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원).

종류	정규등록	현장등록
	4월 1일 ~ 9월 30일	10월 20일 ~ 22일
일반참가자	59	82
법관/공무원/교수	39	54
동반자 (Accompanying)	24	34
학생 (Student)	20	28

단체 참가는 컨퍼런스 홈페이지 <http://www.ipjc2013.org> 를 통하여 그룹코드 부여 (단체; 신청서 제출, 등록담당자; 그룹코드 발송) - 등록비 결제 - 등록(개별등록 진행) - 확정(등록 완료, 숙박 안내, 확정 이메일 발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원).

종류	등록비(만원)	혜택	부스
플래티늄 형	3,000	최대 30명	무료 (1개)
다이아몬드 형	2,000	최대 20명	할인
골드 형	1,000	최대 10명	할인
실버 형	500	최대 5명	

Q.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에 참가하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A. 이번 컨퍼런스는 2013. 10. 20.(일) ~ 2013. 10. 22.(화)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